



배우는 자의 즐거움, 가르치는 자의 도리, 나누는 자의 기쁨을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1997년 가을, 고(故) 인당 강정준 선생이 ‘보람 있는 인생, 참된 인간상, 자립하는 사람’을 건학이념으로 설립한 정은학원을 모태로,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교육공동체 호원대학교의 첫걸음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호원문화의 창달, 실용학풍의 구현 그리고 열린교육체제의 구축을 기치로 설립자의 유지에 따라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산업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호원대학교는 1977년 군산공업전문학교를 시작으로, 1992년 전북산업대학교, 그리고 1998년 호원대학교로 개편하여 오늘의 모습을 갖추고, 개교 33주년을 맞는 작지만 강한 대학이 되었다.

사람이 가장 소중한 교육공동체, 호원대학교

호원의 시작과 끝은 사람이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사람이 가장 소중한 재산이고, 근본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호원도 교육제도와 기술의 발달을 우선시하고 이에 안주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기존의 교육에 관한 상식과 교육제도에 대한 고정관념 등을 훌훌 털어버리고 정반대의 방향으로 발상을 전환하는 것으로 새로운 성장을 위한 변화를 시작했다. 자신과 세상에 대한 오만과 편견을 버렸으며, 세상과 같은 시점(視點)을 갖고 같은 편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기로 한 것이다.

그 첫걸음으로 호원은 과거의 전통적 가치인 기술과 기법이 아닌 인성과 실용을 결합한 ‘현장중심 실용교육’에서 대학교육의 가치를 낳고, 성장의 기틀을 찾기로 했다. 취업률 100%를 달성하기 위한 호원의 노력이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세상의 요구를 필사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성심을 다하는 한편, 단순한 이론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호원인 모두가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무서움을 체험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처음의 초심

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배우는 자의 즐거움, 가르치는 자의 도리, 나누는 자의 기쁨을 함께하는 교육공동체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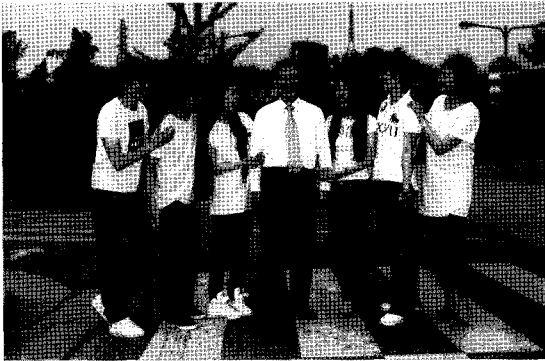


사진 1. 학생들과 함께한 강희성 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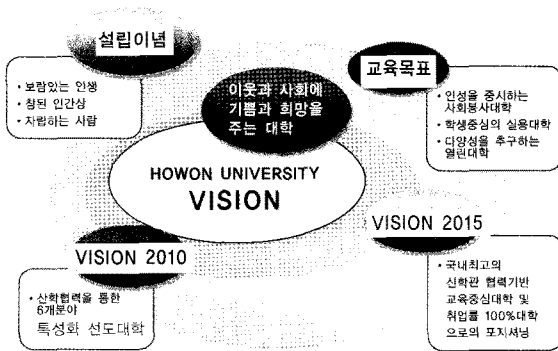


그림 1. 호원대학교 비전

배우는 자의 즐거움

호원이 꿈꾸는 세상의 첫 번째 마당은 모든 호원인들이 배우고, 배움으로 자신의 뼈와 살을 이루고, 배움을 자신의 정신이자 사명으로 생각하는 호원인이 되는 것이다.

직업의 소중함을 배운다, 정규직 취업률 우수대학

지난 5년간의 'HOPE(Howon Project for Full Employment)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호원의 취업률이 2005년 68.5%에서 2006년 70.7%, 2007년 73.6%, 그리고 2008년 76.9%(정규직 취업률 68.1%) 등으로 점진적으로 한 계단씩 상승하고는 있지만, 현대사회에 있어서 안정적인 직업을 얻기란 결코 쉽지 않다.

호원인은 결정적인 '진실의 순간'에 이기는 승부를 할 수 있도록 교양교육과정은 물론이고 전공교육과정을 통해서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사소함의 중요성, 멈춤과 기다림의 효과성, 선택과 집중의 타당성, 그리고 집요함과 끈기의 필요성을 배운다.

특히, 집요함과 끈기에 대한 호원의 학습노력은 유별나다. '집요함은 재주요, 끈기는 능력이다.'라는 교육철학 때문이다. 따라서 호원인은 평소 생활에서 지속적인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일관되게 집요함과 끈기를 배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할 것'을 가르친다, 프로젝트형 현장체험학습

실수는 사람을 깊게 한다. 사람을 닮고 또 만든다. 성장의 크기는 벽에 부딪혀 고생한 양에 비례하는 것이다. 그래서 배움의 길에 있는 학생들에게 벽은 넘는 것보다 부딪히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 설령 그 벽을 넘지 못한다 할지라도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노력하는 사이에 학생들은 어느덧 성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호원은 배우는 방법을 바꿨다. 적소(適所)가 적재(適材)를 만들 수 있다는 인식하에 최선의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고 싶게 만드는 것이 인재양성의 기본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스승들은 배우는 자의 잠재역량에 대해 기대를 갖고 현재의 능력보다 높은 학습목표를 부여하여 자발성을 촉진하는 현장문제해결 중심의 프로젝트형 교수방법으로 전공교육에 대한 학습 자발성을 촉진하고, 학생들은 이러한 문제해결 경험을 통해 현장의 문제를 대하는 사고방식과 문제해결 의지에 있어서 큰 변화를 얻을 수 있었다.

학생들의 미래 적성이나 천직은 눈앞의 배움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전력투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찾는 것이다. 사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자가 조금씩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사후적인 것이다. 처음부터 자신에게 맞는 일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호원에서는 '일'에 자신을 맞춰나가도록 배우고 있다. 대학에 입학하면 무엇보다 먼저 전공 적합성 여부를 산업현장에서 자율창작실습 교과를 통해서 스스로 체험하고 판단해 봄으로써, 자신의 미래 직업을 선택하고 준비함에 있어서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졸업학년이 되면 현장에서 실무 인턴십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장적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기회를 부여받고 있다.



사진 2. 호원대학교 학교생활관 전경

가르치는 자의 도리

호원이 꿈꾸는 세상의 두 번째 마당은 호원의 모든 스승들이 가르치는 자의 냉철한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또 한사람의 부모, 평생지도교수제

사람이 하는 일은 반드시 실패를 동반하기 마련이다. 실패는 부족한 역량에 대한 정직한 보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량이 아직은 부족한 호원의 학생들은 늘 실패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호원의 스승들은 학생들을 실패에 강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성공하는 사람은 실패를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실패를 활용하는 사람이라는 교육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을 실패에 강하게 만들기 위해 호원이 선택한 방법은 성공과 실패를 가능한 긴 시간 축 안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그리고 스승이 스스로 또 한 사람의 부모라는 자세에서, 평생지도교수로서 그 긴 시간을 같이 하면서 현재의 실패가 확정된 결과라고 생각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다독이는 것이다.

물론 학생들이 진정 실패라고 밖에는 할 수 없는 사태와 직면하게 되는 경우에는 잘 질수 있는 방법을 깨우쳐준다. 실패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고, 실패를 활용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도록 응원하는 것이다.

소나무는 소나무로 키운다, 트랙형 전공교육과정

사람을 키우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조직의 틀에 맞추지 않는 것이다. 각자의 역할이 고정되

어 있고, 주어진 악보대로만 연주해야 하는 심포니형 인재보다는 스스로 관리하고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재즈밴드형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다. 즉, 사람에 맞춰서 사람을 키우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호원은 백인백색(百人百色)의 기치 아래, 모든 전공교육과정을 트랙형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소나무는 소나무로 키워야 한다는 대학의 교육철학에 따라 입학 이후에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필요, 그리고 의지에 따라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공학과까지도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학습의 양은 질도 바꾼다,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

어려운 일도 열심히 반복하다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능숙하게 된다. 그 첫걸음은 경험을 단계적으로 쌓는 것부터 시작된다. 아무리 답답하고 괴로워도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갈 수밖에 없다.

호원은 학생들의 학습량을 배가(倍加)를 통해서 '장인'을 만들기 위하여 2004년 교육과정 전면 개편을 계기로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외부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학생들의 선호도를 조사, 반영한 전공기초교과 중심으로 '방과 후 학습프로그램'을 5년째 정규학기 중에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학습의 절대 양이 쌓이면, 학습의 질로 전환된다는 호원의 교육철학 때문이다. 물론 모든 방과 후 프로그램은 공짜다.

나누는 자의 기쁨

호원이 꿈꾸는 세상의 세 번째 마당은 호원인들이 나눔을 소중히 하는 사랑의 실천인이 되는 것이다.

나눔의 터전, 사회봉사를 통한 인성교육

호원은 체계화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나눔의 실천인을 키운다. 명망을 따르지 않는 덕과 공을 탐하지 않는 용감함으로 남에게 관심과 도움을 보이되 어떤 보답도 바라지 않고, 전체를 위해서는 어려움을 도맡아 참고 견뎌내는 호원인이 되도록 스승과 제자가 나눔의 시간을 함께한다.

남들을 돕되 모르게 돕고, 남을 용서하되 조용히 용서하며, 언제나 자신의 분수를 잃지 않으면서도 주어진 시간을 남들과 나누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여유로운 삶을 살아내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호원인의 나눔이 비록 평범해 보일지라도 높고 아름다우며, 다른 것 같지만 늘 한결같고, 얇고 짧은 것 같지만 늘 깊고 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와의 약속, 기쁨과 희망을 주는 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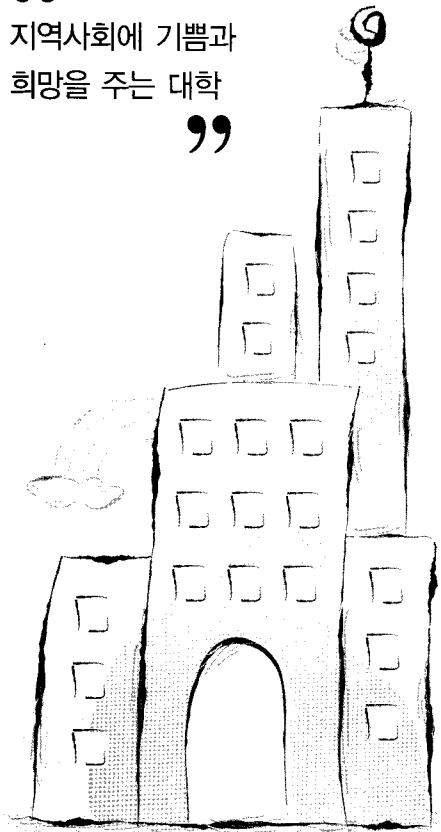
대학은 할 수 있는 것(능력)을 하나씩 늘려가면서 하고 싶은 것(목표)을 달성하고 성취하는 한편,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해야만 하는 것(비전)을 추구해야 한다. 대학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조직이고, 세상과 소통해야만 하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호원의 비전은 '지역사회에 기쁨과 희망을 주는 대학'이다. 이 사명은 호원의 세상을 향한 선언이자 세상과의 약속이다. 따라서 호원은 신성한 선언과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성실, 창조, 봉사를 교훈으로 배우는 자의 즐거움, 가르치는 자의 도리, 나누는 자의 기쁨을 함께하는 교육공동체로 거듭나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멀지 않은 훗날, 호원인들이 자신의 푸르른 젊음의 향기와 뜨거운 열정을 지켜본 모교를 떠나 세상이라는

드넓은 광장에서 다시 만났을 때, 호원인들은 호원과 함께한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사람들을 기억하며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또한 호원인은 삶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할 때도 모두 떳떳할 것이다. 학생은 배우는 자는 본분을 다하여 성심껏 깨우쳐 미래를 준비했고, 스승은 가르치는 자의 본분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미래를 가르쳤으며, 호원은 진정으로 준비하는 자, 노력하는 자, 그리고 꿈꾸는 자의 미래를 가능케 하는 고향이 되었기에……. 그래서 호원인은 행복할 것입니다. ■

“
지역사회에 기쁨과
희망을 주는 대학
”



대 / 학 / 연 / 혁

- 1977. 10. 20 학교법인 정은학원 설립(강정준 이사장 취임)
- 1977. 12. 3 군산공업전문학교 설립
- 1978. 1. 13 초대 유현기 학장 취임
- 1984. 12. 8 군산개방대학 설립
- 1992. 9. 1 전북산업대학교로 교명 변경
- 1993. 1. 15 제2대 강두식 총장 취임
- 1997. 1. 15 제3대 강두식 총장 취임
- 1997. 6. 20 옥구 산캠퍼스 준공, 이전
- 1998. 5. 1 호원대학교로 교명 변경
- 2001. 1. 15 제4대 강희성 총장 취임
- 2002. 3. 1 중국 산둥외국어대학과 자매결연 체결
- 2002. 5. 24 러시아 과학원 자매결연 체결
- 2002. 9. 원광보건대학, 서해대학, 군장대학, 정주공업대학과 교육과정연계운영 협약체결
- 2002. 10 중국 대련이공대학, 연태대학, 청도대학과 교류협정 체결
- 2002. 10. 30 GM대우자동차와 산학협동에 관한 협약 체결
- 2003. 2. 21 호원문화체육관, 대운동장 준공
- 2003. 5. 13 TI(무역실무사업단) 사업대상 대학 선정
- 2003. 12. 4 호원야구단, 축구단 창단
- 2003. 12 중국 웨이팡대학, 라오청대학 심양사범대학 및 러시아 극동대학과 교류협정 체결
- 2004. 4. 23 IT학과 교육과정 개편 지원사업 대학 선정
- 2004. 4. 14 산학협력단 법인 설립
- 2004. 4. 29 청년채용 패키지사업 보조사업자 대학 선정
- 2004. 10. 12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NURI) 대학 선정
- 2005. 1. 15 제5대 강희성 총장 취임
- 2005. 10. 31 MICT시스템 기반 교육과정 개편사업 대학 선정
- 2005. 11 한국산업기술재단 공학교육개편지원사업 대학 선정
- 2006. 4. 30 중소기업청 창업보육사업 지원 사업자 대학 선정
- 2006. 5 전라북도 문화컨텐츠아카데미 지원사업, 캐릭터 공모전 지원사업, 전북테크노파크 기술지도사업 대학 선정
- 2006. 6. 23 한국 대학사회봉사협의회 봉사활동 공모지원사업 대학 선정
- 2007. 10. 6 제30주년 개교기념행사
- 2008. 3. 19 공군본부 현정체결
- 2009. 1. 15 제6대 강희성 총장 취임
- 2009. 2. 25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대학 선정